6) 새 시대의 성가대에 필요한 역할

이에 발 맞추어 시대의 발전과 변화, 특히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게 된 우리 교회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성음악 봉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교육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선 본당에서는 성악전공자, 그것도 유학파라면 거의 무조건 성가대 지휘자로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과 그 어려움들은 일단 배제하고 원칙적으로만 이야기 하자면, 지휘자는 그저 노래만 잘 불러서는 안 된다. 오늘날 진정한 성가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합창지휘 능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 그레고리오성가에서부터 현대 합창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지식, 4성부 뿐만 아니라 성가대의 인원 부족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편성으로의 편곡과 사보 능력, 성당의 음향을 고려하여 음향기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다양한 미디어 및 그 기기들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서양음악 뿐만 아니라 국악과 그 악기에 대한 지식도 지녀야 하며 CCM 밴드나 기악 앙상블의 구성과 그 음악에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성가대와 교우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에 따른 시대 변화와 관계없이 모든 것에 앞서서 성가대 지휘자는 전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사목자를 보필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성가대 반주자도 오르간뿐만 아니라 현대성가도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반주할 줄 아는 재즈 피아노 연주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신디사이저와 같은 전자악기에 대한 이해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부지휘자가 없다면 지휘자 부재시 연습 지휘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성가대원들은 음악에 대한 자신들의 취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전례에 대한 영성을 바탕으로 하고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으면서라도 그레고리오성가에서 현대성가에 이르기까지 훨씬 다양한 음악들을 소화할 줄 아는 가창 능력을 지녀야 하며 연습시간을 충실히 지키는 성실성과 더불어 시창능력을 더욱 키워서 한정된 연습시간 내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의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다양한 음악이 넘쳐 나는 이 시대에 미사에 있어서 교우들, 특히 교회의 미래인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비롯한 성음악 직무자들은 더욱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한 능력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전통을 보존하는 가운데 다양한 장르의 음악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데 이는 기존의 전통 성음악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교회음악 분야의 교육기관들이 점차 외면받으며 사라져가는 이 시점에 성음악의 교육과 활용분야를 더욱 확대시켜야 하고 이미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지적한 것처럼(전례헌장 115항) 교회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시대적 부르심이기도 한 것이다.